



## 초음파 이용한 암환자치료법 새로 개발

전세계적으로 癌치료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英國의 한 의학팀은 수술없이 초음파를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 실용화를 앞두고 있다.

런던 로열마르스텐병원의 게일 터하르박사팀이 개발한 초음파치료법은 아직은 동물실험단계에 있으며 시험관내에서 인체조직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수준이나 빠르면 1년 이내에 인체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터하르박사는 “초음파를 이용해 암을 치료할 경우 수술이 전혀 필요없으며 환자들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지 않고 외래환자와 같이 매일 병원을 찾아와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히고 “이 치료법은 특히 화학요법시 발생하는 부작용이 전혀 없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현재 초음파치료법을 간암치료에 적용하는 문제를 연구중이지만 간암 이외에 전립선암, 방광암, 신장암, 유방암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음파를 이용한 암치료법은 특히 간에 암이 ‘轉移’(metastases)되는 것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현재의 의학수준

으로는 간에 암이 전이될 경우 수술로도 치료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만 초음파는 공기나 뼈는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폐암의 경우에는 초음파치료법을 적용할 수 없는데 근육이나 뇌에 발생한 암조직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또다른 대표적인 증세는 전립선비대증으로 런던대 비뇨기연구소의 존 위컴소장은 “초음파를 이용해 전립선비대증을 치료하게 되면 요도에 아무런 기구도 삽입하지 않고 비대해진 전립선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보건의료정책에 都·道·府·縣 협력 요청

日 후생성, 고령화 사회에 따른  
성인병 증가에 따라

일본 후생성은 암, 성인병, 뇌졸중의 3대 성인병에 의한 사망이 총사망자수의 60%를 점하고 있어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년 전략을 효과있게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성인병 대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 都·道·府·縣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 후생성 데라마쓰(寺松)보건국장은 근년의 보건의료정책의 변화를 고

명화사회에 따른 성인병 증가와 과학 기술의 급속한 진전, 국제화의 진전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장기이식이 나 인공장기 기술의 진전을 기초로 새로운 기술의 보급을 위해 사회체계를 정비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보건국장은 올해의 사업 설명에서 ▲골수자료은행사업 실시에 따른 장기제공자 보상체제 확립 ▲국제의료협력연수센터 정비 ▲노인성치매질환전문병동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보건의료정책은 都·道·府·縣의 협력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 녹차에 함유된 폴리호놀, 대장암 예방

일본 太陽化學은 최근 녹차에 함유된 폴리호놀類에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에서 밝혀내었다.

이 회사는 녹차를 많이 마시는 지역에서는 암사망률이 낮다는 역학적 보고에 따라 4년전부터 연구를 시작했는데 랫트에 발암제인 아조키시메탄을 투여한 후 랫트를 3그룹으로 나누어 2그룹에는 음료수속에 녹차추출물인 폴리호놀類를 각각 0.01%, 0.1%씩 첨가해 주고 다른 1그룹은 수돗물 만으로 사육하는 실험을 한것.

## 미국 마약 범죄 최근들어 급증 추세

美國은 마약으로 망할 것이란 말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어온 터이지만 최근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마약에 연루되어 수감중인 사람은 지난 2년 간 거의 두 배 이상이 늘어난 3만 3천명에 달하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美교도소통계국이 지나 4월 24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되어 전체 수형인구가 현재의 6만여명에서 95년에는 10만명 선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또 그 때쯤이 되면 마약범죄자가 전체 수형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의 23%에서 69%까지 오를 것이라는 통계도 함께 내놓고 있다.

범죄정의정책재단의 Eric Sterling 회장은 소위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다른 범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奇現象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편중된 사건수사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하원법사소위에서 연방교도소장인 Quinlan씨는 마약사범의 급증으로 교도소 신축 등의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 92회계년도에도 21억불의 예산을 신청하는 등 행정부 내에서 최근의 예산신장세를 보이는 부서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했다.